

張錫純의 心の 生理에 대한 闡發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朴基兌 · 尹暢烈*

對張錫純在心の生理方面的闡發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朴基兌 · 尹暢烈

通過對張錫純在心の生理方面的闡發的研究, 得出如下結論.

血乃生於心火, 並依賴大氣而運行. 大氣以元氣爲本, 元氣生於命門穴, 受水穀之氣的培養, 留於胸中, 此胸中大氣稱爲宗氣.

君火乃是發於心中之陽中之火, 可消化脾胃之飲食物, 君火下行則相火旺盛, 下元變得溫暖. 相火源於命門穴, 循三焦的油膜(網油)與心包結相連, 皆屬於火, 診見於右手尺部脈.

先天之君火乃丹田之元陽, 相火乃命門之火; 後天之君火乃心火, 相火亦爲命門之火, 而屬於膽中寄生之火. 元陽之火與命門相火, 可消化大小腸的飲食, 上焦之心火與中焦之膽火, 可消化胃中的飲食.

張錫純綜合了西方人提出的神明在腦的學說, 丹經的元神說, 以及“頭者精明之府”和“心者君主之宮, 神明出焉”之說, 認爲腦乃神明之體, 爲元神所居, 心乃神明之用, 爲識神作用之所.

Key Words : 心, 心火, 大氣, 元氣, 命門, 君火, 相火, 腦, 神明, 元神, 識神.

1. 緒論

張錫純(1860~1933)의 字는 壽甫이고 河北省 鹽山縣 邊務村人이다.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워 四書三經과 諸子百家를 貫通하였으며 점차 자라면서 글을 읽는 여가에 醫學을 공부하였다. 뒤에 두 번에 걸쳐 과거에 낙방하자 儒學공부를 버리고 오로지 醫學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內經』 『難經』 등을 위주로 후세 醫書를 정밀하게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의학까지 깊이 연구하여 당대에 명성이 자자하였다. 그는 당시 江蘇의 陸晉笙, 楊如候 廣東의 劉蔚楚와 함께 醫林四大家로 일컬어졌고 또 慈溪의 張生甫 嘉定의 張山雷와 함께 海內三

張, 三張三達의 名醫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당시의 雜誌에 많은 글을 發表하여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찬사를 받았고 일생동안 저술에 힘써 遺稿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의 死后 6년만에 발생한 洪水에 의해 그의 집이 水沒되어 많은 遺書가 소실되었다. 그러나 1918년부터 1934년에 걸쳐 七期로 나누어 간행된 『醫學衷中參西錄』이 남아 있어 그의 중요 醫學思想과 治驗例 治療處方 등을 살펴볼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하여 心臟은 一身을 主宰하는 神이 머물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는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시대이다. 張錫純이 밝힌 心の 生理와 病理 그리고 心の 病證과 治法 등에 대한 연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張錫純은 心臟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과 中醫學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 280-2601, yooney@dju.ac.kr

의 이론을 바탕으로 大氣가 심장을 박동시키는 원동력이라 하였고 이 大氣는 腎의 元氣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 君火와 相火를 同時에 밝히고 있으며 서양 사람들이 神明이 腦에 있다는 說을 수용하여 『內經』에서도 “頭者精明之府”라 하여 神明이 腦에 있다는 說이 본래부터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腦는 神之体인 元神이 머무는 곳이고 心臟은 神之用인 識神이 작용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에 張錫純의 心의 生理에 대해 啓發한 내용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2. 心主血脉에 대한 西醫學的 理解

『素問·痿論』에서 “心主身之血脉”이라 하였고 『宣明五氣篇』에서는 “心主脉”이라 하였으며 또 “心合脉” “心藏脉” 등의 표현도 있다. 『六節藏象論』에서는 “心者……其充在血脉”이라 하였고 『陰陽應象大論』에서는 “心生血”이라 하였다. 心主血脉은 心臟이 血液과 脉管을 주관하고 있고 또한 血液을 推動시켜 血管속을 운행케 하는 作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張錫純은 小柴胡湯解에서 血이 心火에서 생겨나니 火가 움직이면 血도 운행하고 火가 막히면 血도 막히게 된다(血生於心火하니 火行則血行하고 火阻則血阻라)고 하였으며 加味桂枝代粥湯條에서 다시 “營이 心에서 생겨난다(營生於心)” “心火는 營血을 생한다(心火生營血)”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한 血液이 전신을 순환하는 원리에 대하여 당시의 서양의학의 지식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서양의학에 의하면 인체에서 心臟과 肺의 관계는 아주 중요해 腦에 필적한다. 무릇 관계가 중요한 것은 잘 보호되어 있고 더욱 조심스럽게 간직되어 있는데, 腦는 頭額 등의 8개의 뼈로 보호되어 있고 心肺도 胸膈부위의 모든 뼈가 보호하고 있다. 心肺는 장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기능도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心의 기능은 전체에 관계되어 心이 병들면 전체

가 다 해를 받게 되니 心의 중요함이 이와 같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물체로서 논해 본다면 붉은 고깃덩이에 불과하나 그 능력은 수축과 확장을 주관하여 血脈을 흐르게 할 수 있다. 좌우상하에 4개의 房이 있는데 左上房(좌심방)은 肺에서 오는 赤血(동맥혈)과 접하고, 右上房(우심방)은 전신에서 돌아오는 回血(정맥혈)과 접하며, 左下房(좌심실)은 동맥혈을 내보내어 전신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右下房(우심실)은 右上房의 정맥혈을 받아 肺로 보내어 赤血(동맥혈)로 바꾸어 左上房으로 돌아오게 한다. 左上房의 동맥혈은 左下房으로 내려와 總脉管(대동맥)으로 나가 전체를 영양하고, 右上房의 回血(정맥혈)은 右下房으로 내려와 肺로 上注하여 탄산가스(碳氣)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온몸의 血은 다 心肺를 경유한다. 心은 血을 운행시켜 온몸을 순행하도록 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들어오면 곧 나가고 나가면 곧 들어온다. 때로 박동이 겉에서 느껴지는데 1분에 75번, 1시간에 4,500번, 하루에는 108,000번을 뒀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박동을 느끼지 못하는데 만일 心의 박동을 자각한다면 이는 心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心臟의 위치는 胸中の 왼쪽에 있는데 늑골 4번에서 7번 사이에 있고, 心尖은 흉골 제 5~6번의 사이에 있으며, 心尖은 유두에서부터 아래로 약 1寸에서 0.5寸 정도 떨어져 있고, 가로로는 흉골 쪽을 향한다.²⁾

위의 내용은 장석순이 현대 해부학적으로 밝혀진 血의 전신순환과 폐순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쓴 글로 중서회통과 의가로씨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위에서 먼저 心肺의 중요성이 腦와 같다고 하여 腦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서양 의학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心肺의 밀접한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心病則全體皆受害라 하여 心이 君主之官이라는 한의학적인 관점도 역시 수용하고 있다.

그는 동맥혈을 赤血, 정맥혈을 回血이라 하였고 폐에서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한다는 내용도 정확

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2.

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2.

히 이해하고 있었다. 단지 현재 정상인이 1분에 72회 정도 심장이 박동하는데 이를 75회로 인식하여 1시간과 1일의 박동 수를 계산한 것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심장 순환의 원동력은 大氣이다

심장의 박동은 心氣의 推動에 의지하며 心氣는 元氣로부터 기운을 받으므로 心氣와 元氣의 성쇠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元氣와 관련된 것이 宗氣인데 宗氣는 흉중에 쌓인 氣로써 『靈樞·邪客』에서는 “宗氣는 積于胸中하고 出于喉嚨하여 以貫心脉而行呼吸焉이라”고 하였다.

장석순은 내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大氣와 『金匱要略·水氣病』篇에서 논한 大氣를 깊이 연구한 기초위에서 李東垣, 喻嘉言의 관련 논술을 참고하고 임상에서 大氣下陷證을 치료한 체험을 결합하여 大氣의 개념, 生成과 作用, 病因病理, 임상에서의 감별진단과 치료 등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인 闡發을 하였다.

그는 升降湯條에서 大氣의 發生之處는 命門穴이고 培養之處는 水穀之氣이고 積貯之處는 胸中이라고 하였다.

大氣는 胸中에 가득차서 肺가 호흡을 하게 하는 기운이다. 사람의 몸은 飛門으로부터 魄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기운이 주관한다. 그러나 이 氣가 발생되는 곳과 배양되는 곳, 축적되는 곳이 각각 다르다.

‘天一生水’하므로 腎臟이 먼저 생성되고 腎은 命門으로 연계되는데(命門은 腎의 膜油를 감싸면서 척추 아래서부터 위로 일곱째 마디인 곳에 연결되어 있다) 氣가 하나하나 싹트게(息息萌動) 되니 이것이 乾元資始의 氣로써 『內經』에서 말하는 ‘少火生氣’이다. 이 氣는 少火에서 발생한 후 서서히 위로 올라가 後天의 水穀의 氣로 배양되어 충만한(磅礴) 세력이 되며 가슴(膺胸)속 빈곳에 저장되어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듯 大氣는 원래 元氣를 근본으로 삼고 水穀之

氣에 의해서 배양되고 胸中을 거처(宅窟)로 삼는다. 모두 같은 氣이지만 胸中の 氣만을 大氣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몸을 지탱하면서 모든 氣의 綱領이 되고 肺外를 둘러싸고 받쳐서 호흡을 주관하는 중추(樞機)가 되기 때문에 중히 여겨 大氣라고 한 것이다.³⁾

위의 내용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명문과 삼초 등의 내용은 한의학의 이천년의 역사에서 많은 이론과 논쟁이 있어 왔지만 확연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는 이에 대해 天一生水하기 때문에 氣의 근원은 腎臟에서 생성되고 이것이 三焦를 통해(장석순은 당중해의 견해를 따라 腎을 싸고 있는 膜油를 포함하여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모든 脂膜을 三焦로 보고 있다) 七節之旁中有小心이라 한 제2요추 아래의 命門穴에 위치한 명문으로 연결되어 元氣를 생하고 이것이 수곡지기의 배양을 받아 흉중에서 大氣가 되어 心肺의 氣血을 운행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요구되지만 그가 이렇게 인체 氣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은 참모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 그는 大氣와 元氣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대답에서 元氣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大氣는 나무의 줄기와 같고 宗氣는 나무의 열매와 같다고 하였다.

元氣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胚胎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道家 서적에서는 ‘祖氣’라고 존중하였다. 大氣는 先天에서 비롯되고 後天에서 배양되는 것으로 신체의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內經』에서는 ‘宗氣’라고 존중하였으며 나무 꼭대기의 열매와 같다. 元氣는 나무의 뿌리이고 大氣는 나무의 줄기이다. 뿌리의 열매에 대한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줄기의 열매에 대한 관계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⁴⁾

다음에 장씨가 역대의 문헌을 통해 大氣를 연구하

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55-156.

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75.

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肺가 호흡을 주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肺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胸中大氣에 의한 것임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잘 모르고 方書에서 또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나도 처음 의학을 배울 때는 이 氣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임상에서 세심히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肺氣로 호흡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胸中에 氣가 저장되어 있어서 肺臟의 호흡을 주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氣는 전신을 지탱하고 精神을 진작시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이 氣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 氣가 일단虛하게 되면 호흡이 즉시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肢體가 시리면서 나른해지며 정신이 흐려지고 사고력이 둔감해지게 된다. 만약 이 氣가 虛한데다가 下陷하게 되거나 심하게 下陷하면 호흡이 갑자기 멈추고 정신을 잃게 된다.

나는 이미 체험을 통해 胸中에 쌓인 이 氣가 전신과 처음부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이 氣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알지 못해 方書를 뒤적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오직 『金匱·水氣門』의 桂枝加黃芪湯 조문에서 “大氣가 한 번 돌면 그 氣가 이에 흩어진다(大氣一轉하면 其氣乃散)”는 말이 있었다. 그 후로 喻嘉言의 『醫門法律』에 “五臟六腑와 大小經絡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순환하는데 반드시 胸中의 大氣에 의지하여 그 사이를 돈다(五臟六腑 大經小絡이 晝夜循環不息할새 必賴胸中大氣야야 斡旋其間이라)”라고 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胸中에 쌓인 氣를 大氣라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內經·熱論篇』에 “大氣가 모두 제거되면 병이 나날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王氏가 이 문장의 大氣에 대해 大邪之氣라고 주를 단 것이 기억났다. 만약 胸中의 氣가 또한 大氣라고 한다면 仲景과 喻氏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가? 또한 이 두 책에서는 下陷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內經』을 자세히 연구하여 마침내 『內經』에서 말하는 大氣는 外感之氣를 말하는 것과 胸中之

氣를 말하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內經』에서 말하는 宗氣가 곧 胸中大氣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아울러 그 ‘下陷’의 설 또한 『內經』에서 이미 언급하였음을 알았다. 환히 빛나는 성인의 말씀이 그 밝기가 하늘의 해와 별과 같건만 어찌 수천 년 동안의 저술한 諸家들은 이 이치를 크게 밝혀 놓지 못했는가?

지금 『內經』의 문장을 취하여 해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靈樞·五味篇』에서 “음식물이 처음 胃로 들어가면 그 精微로운 것이 胃에서 나와 上·中·焦로 들어감으로써 五臟을 적셔 주고, 두 갈래로 나뉘어서 營分과 衛分의 통로로 운행된다.

이와 동시에 大氣가 모여 운행되지 않고 胸中에 모여 쌓이면 氣海가 된다. 이 氣는 肺에서 나와 인후를 따라 흐르므로 숨을 내쉬면 나오고 들이쉬면 들어온다. 천지의 精氣는 대부분 몸 안의 精氣가 셋이 나가면 天地의 精氣가 하나 들어온다(出三入一). 그러므로 음식물을 한 나절 동안 먹지 않으면 氣가 쇠약해지고,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氣가 부족해진다”라고 하였다.

나는 肺가 胸中에 매달려 있으면서 아래로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다. 胸中大氣는 肺外를 에워쌀 뿐 위로 喉와 통하지 않고 아울러 咽과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出于肺 循喉咽 呼則出 吸則入’이라 한 것은 大氣가 肺臟을 고동시켜 호흡을 하게 하여 肺中의 氣가 출입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天地之精氣 常出三入一’이라 한 것은 흡입된 氣가 비록 胸中과 상통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肺와 膜 사이에서 1/4이 투과하여 胸中大氣를 기르고, 그 나머지 3/4은 나오게 되는데, 즉 臟腑 중의 혼탁한 氣와 교환된 것이니 이것이 氣化의 妙用이다.

그러나 이 篇은 오로지 五味가 사람을 기른다는 것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음식이 胸中大氣를 기른다고 말은 하였으나 실제로는 大氣의 본원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내가 일찍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두 臍呼吸을 하기 때문에 胸中에는 원래 大氣가 없고 또한 大氣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胎氣가 날로 성장해감에 따라 臍下의 元氣가 점차 충실해

지고 마침내 조금씩 胸中으로 상승하여 大氣가 된다. 大氣가 점차 가득 차게 되면 肺膜을 고통시켜 호흡을 하게하고 출산 후에는 폐호흡으로 천지의 氣와 통하게 된다(서양인들은 폐호흡은 연수가 주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胸中大氣가 연수의 원동력이 된다).

大氣가 宗氣라는 것도 또한 『內經』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알 수 있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胃의 大絡을 虛里라 부르는데 왼쪽 유방 아래에서 나와 그 박동이 옷 위로도 느껴지므로 그 脈이 宗氣”라고 하였다. ‘虛里의 絡’이라는 것은 즉 胃가 水穀의 氣를 胸中으로 보내어 大氣를 기르는 道路라는 것이다. 그것은 膈을 뚫고 肺에 絡한 것 외에 또 왼쪽 유방 아래로 나와 動脈이 된다. 이 動脈은 당연히 大氣의 여파인 것이다.

‘宗氣’라 한 것은 宗氣는 즉, 大氣로써 그것이 생명의 중추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존중하여 宗氣라 한 것이다. 그 絡을 虛里라 한 것은 그것이 膈을 뚫고 肺에 絡하여 胸中의 공허한 곳을 흘러 다니기 때문이다.⁵⁾

장씨는 大氣는 宗氣로써 호흡과 心臟搏動의 중추가 됨을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靈樞·邪客篇』에서 이르기를 “五穀이 胃에 들어가면 糟粕, 津液, 宗氣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宗氣는 胸中에 쌓여 喉嚨으로 나와 心脈을 통과하여 호흡을 행한다”고 하였다. 이 經文을 살펴보면 宗氣가 곧 大氣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또 『五味篇』에서 ‘伯高’가 말한 바와도 일치하니 말은 두 사람에게서 나왔으나 일치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以貫心脈而行呼吸’이라는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大氣가 모든 氣의 강령이 될 뿐만 아니라 전신 血脈의 강령이 됨을 알 수 있다. 大氣下陷의 설에 대해서는 『內經』에 비록 명확한 문장은 없으나 실제 그 이치를 『內經』에서 엿볼 수 있다.⁶⁾

胸中大氣를 宗氣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大氣라 부르며 後天의 생명의 宗主가 되므로 宗氣라 부른다. 『內經』에서 ‘宗氣는 胸中에 쌓여 心脈을 貫通하고 호흡을 행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內經』의 말을 깊게 생각해 보면 肺葉의 소통(關關)은 실제로 大氣가 주관하는 바이고 心機의 跳動 역시 大氣가 주관하는 바임을 알 수 있다.

지금 大氣下陷으로 인해 그 주관하는 바를 잃게 되므로 肺가 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心機의 跳動 역시 병을 얻어 脈이 느려지게 된 것이다.⁷⁾

4. 君火, 相火에 대한 闡發

(1) 君火는 脾胃의 消化를 도와준다

역대의 醫家들이 相火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였으나 君火에 대해서는 언급한 자가 많지가 않았다. 장석순은 心은 君火로서 온몸의 열을 다스리고 肺는 心과 함께 膈上에 있으면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血脈의 순환이 쉬지 않고 통하니 心과 더불어 서로 도우며 함께 上焦의 陽氣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氣가 비록 上焦에 있으나 마치 해가 중천에 떠서 아래로 땅을 비추는 것처럼 그 熱力이 中焦에까지 미쳐서 胃의 음식을 腐熟시키고 下焦에까지 미쳐서 命門의 상화를 왕성하게 하여 안으로 장부를 따뜻하게 하고 밖으로는 온몸을 따뜻하게 하니 실제로 이 陽氣에 의해서 펼쳐지고 보호되고 宣通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⁸⁾

그는 敦復湯條에서도 君火가 음식을 消化시키는 主動力이 되며 心의 君火가 下元을 따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자신의 수행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체의 熱力에 대해 方書에서는 항상 相火가 많은

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57-158.

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58.

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下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5.

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下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23-24.

것만을責하고 있으나 君火의 熱力이 相火에 비해서 더 강함을 알지 못하였다. 대개 자녀를 생육하는 것은 相火가 위주가 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君火가 위주가 된다. 君火는 心中에서 발생하여 陽中의 火가 되는데 그 熱이 아래로 건너가면(下濟) 脾胃를 溫暖시켜 그 소화하는 힘을 도울 수 있지만 이 火가 일단 쇠하게 되면 脾胃의 소화하는 힘이 갑자기 감소되어 버린다.

君火는 왕성하나 相火가 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은 多飮多食하여 장수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君火의 熱力이 인체와 매우 깊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내 임상경험으로 보면 君火가 虛한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먹는 식사량이 적었고 寒飮이 留滯된 병이 있었으니 辛熱升補하는 약제를 투여하여 손쓰는 대로 효과를 얻었다.

心火의 熱力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면 지금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다. 나는 선천적으로 본래 건강하여 心火는 상당히 왕성하나 相火는 조금 쇠약하여 음식은 寒涼한 것을 꺼리지 않았지만 항상 서늘한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식전에 항상 검은 콩(黑豆) 1개 크기의 生硫黃 대략 4釐를 복용하였더니 아주 효과가 있었다.

후에 道家書를 보니 목묵히 心火를 아래로 운행시켜 腎氣와 서로 교감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또 『崔公入藥鏡』의 “先天氣·後天氣를 얻은 자는 항상 취한 듯하다”는 네 구절을 인용하여 주해를 달아 놓은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믿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抱朴子·大丹問答篇』서 “意가 雙이면 곧 조화되고, 조화되면 곧 장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보고는 이 방법에 의문을 가졌다. 계속해서 찾아보니 『內經·四氣調神論』에서 말한 “뜻을 감춰진 듯 숨긴 듯 하고, 사사로운 뜻이 있는 듯 하며 이미 얻은 바가 있는 것과 같이 하다”라는 것이 이 방법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를 본받아 수행해 보았더니 며칠 내로 下元이 따뜻해짐을 깨달아서 다시 硫黃을 복용하고 싶지 않았다.

한 달여 동안 효과가 탁월했고 그 신묘함은 말로 이루 다 전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이로 보건대 心火

의 기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

첫째는 君火와 相火의 來源이다. 역대의 의가들 중에서 君火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거의 드물다. 그렇지만 君火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였고 心이 君主之官이고 心主火하므로 心臟의 火가 君火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장석순은 君火는 心中에서 發한 陽中之火라고 분명한 언급을 하였고 이 火가 아래로 내려가 命門의 相火를 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탁견으로써 相火가 君火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단전 호흡을 통해 心火 즉 君火를 下行시키면 下元이 溫暖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相火가 왕성해지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둘째 君火의 작용이다. 역대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고 火生土의 작용에 의해서 음식물이 소화된다고 인식하였다. 허숙미가 二神丸條에서 “蓋因腎氣怯弱하여 眞元衰劣하여 自是不能消化飲食이니 譬如鼎釜之中에 置諸米穀이나 下無火力이면 雖終日이라도 米不熟이니 其何能化리오¹⁰⁾”라고 한 이후 脾胃의 消化力의 動力을 신장의 火에서 구하였다. 그러나 장석순은 君火의 熱力이 胃中の 음식을 소화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의 임상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相火의 來源과 치료를 밝힘

장석순은 資生湯條에서 相火는 水臟의 命門穴에서 생겨나서 陰中의 火가 되니 方書에서는 龍雷之火라고 말하였는데 양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相火는 寄於肝膽하니 肝虛하여 不能疏泄하면 相火가 卽不能逍遙流行於周身한다고 하였다.¹¹⁾

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38-39.

10) 劉景超, 李具雙 主編. 許叔微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 100.

그는 三焦, 心包, 命門, 相火 등을 右尺에서 진단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加味桂枝代粥湯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王叔和의 『脈訣』에서는 三焦와 心包絡을 모두 오른쪽 尺部에서 진찰했으나 후세에 대부분 착오라고 비판하였다. 나 역시 진작부터 그것이 의심스러웠는데 후에 唐容川이 三焦와 腎系를 논해 놓은 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비로소 환해졌다.

이른바 腎系라는 것은 腎에 絡한 脂膜이다. 그 뿌리는 척추에 이어져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세어 7번째 관절에 있다. 이것이 命門穴이니 相火가 유래하는 곳이다. 이 油膜은 원래 網油와 더불어 일체이다.

위로는 膈膜이 되고 더 올라가면 心和 肺가 서로 이어지는 胞絡이 된다. 이로부터 心包絡과 三焦가 역시 모두 命門에서 발원함을 알 수 있다. 또 心包絡과 三焦는 서로 臟腑로 배속되어 모두 火에 속한다. 그러므로 相火와 더불어 오른쪽 尺部에서 함께 진단할 수 있다.¹¹⁾

상화의 치료법에 대해 그는 “相火는 전기와 같은데 전기의 성질은 철을 좋아하여 잘 끌어당기는데 地黃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相火를 끌어내려 원래의 위치로 안정시킨다.”¹²⁾고 했고 또 쇠에 쓴 녹인 산화철이 上逆한 相火를 아래로 끌어 내릴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학자들은 쇠에 쓴 녹을 산화철(鐵氧)이라고 부르는데 철과 산소가 화합하여 녹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肝膽을 잘 진정시키는 것은 쇠에 쓴 녹이 金의 餘氣이므로 金이 木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上盛下虛의 증을 잘 치료하는 것은 그의 성질이 무겁기 때문에 上逆한 相火를 아래로 끌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相火는 陰속의 火로서 전기와 같은 부류인 이것이 철이 전기를 끌어당길 수 있

다는 이치인 것이다.¹⁴⁾

또 새벽의 복통 설사를 치료하는 加味四神丸條에서 命門相火를 補하여 치료하는 방법과 약물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은 천지의 氣를 받아 태어나므로 사람은 소우주이다. 천지의 一陽은 子時에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은 자정 무렵에 腎과 이어진 命門에서 氣가 끊임없이 움트게 되니 이것이 사람 몸의 陽氣이다.

새벽녘 寅時에는 三陽의 시기이므로 사람 몸의 陽氣 또한 때에 맞추어 상승하여 下焦에서 中焦까지 도달하게 된다. 元陽의 뿌리가 본래 虛하다면 배꼽 부위에 통증이 있고 또는 寒邪가 멎어서 겹쳐서 막고 있으면 서로 가볍게 부딪혀 아랫배에까지 통증이 미치게 된다. 그것이 오래되어 陽氣가 멎어 있는 寒邪를 이기지 못하여 상승하는 기전이 하강하게 되면 대변도 역시 물러지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이것이 새벽에 설사하는 이유이다. 下焦의 陽氣는 小火이면서 相火이니 그 火는 命門에서 생겨나고 肝膽에 붙어 있다.

四神方은 補骨脂를 사용하여 命門을 補하고 吳茱萸를 사용하여 肝膽을 補하니 이것이 화를 배양하는 기틀이 된다. 설사는 下焦와도 관계되지만 실제로는 또한 中焦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肉苳蔻를 사용하여 그 辛溫함으로 脾胃를 溫補하게 하고, 또한 辛하면서 澁한 맛으로 五味子の 酸斂하는 것을 도와서 大腸을 固澁하게 하며 下焦의 氣化를 統攝할 수 있게 한다. 또 生薑과 大棗를 함께 달이고 棗肉으로 丸을 만들었으니 辛甘이 함해져서 下焦의 陽을 끌어당겨 中焦에 도달하게 한다.

이 약을 사용하면 병이 가벼운 경우는 나올 수 있으나 병이重的 경우는 복용해도 간혹 낫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는 補火하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元氣를 크게 補하는 花椒와 硫黃을 가하여 돕게 하면 약력이 비로소 병을 이길 수 있게 된다.¹⁵⁾

1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89.

1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03.

1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3.

1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329.

1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39.

그는 또 癩風을 치료하는 加味磁朱丸條에서 磁石과 朱砂를 써서 君火와 相火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처방이 癩風을 치료할 수 있는 까닭은 癩風의 근본이 腎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腎中の 相火가 갑자기 동할 때 癩風도 이를 따라 나타나게 된다. 痰涎이 위로 넘치게 되면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相火는 陰속의 火로 빛속의 전기와 같은 부류이다. 전기는 철을 통해 잘 전도되는데 磁石에 철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또한 철을 끌어당길 수 있으므로 전기를 간직할 수 있고 전기와 같은 부류인 相火도 간직할 수 있다.

또 相火의 발동에는 항상 君火가 그 내면에서 동하고 있기 때문에 朱砂로 心火를 안정시키면 相火는 더 이상 妄動하지 못한다. 또한 전기는 토로 들어가면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므로 喻嘉言이 “陰分の 火를 제압하는 것은 脾土를 배양시키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토가 전기를 제압할 수 있으니 水中의 火도 제압할 수 있으므로 神曲이 脾胃를 濫補시키면 相火는 더욱 깊이 숨어들게 된다.

원방에서는 이 3가지 약물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赭石과 半夏를 가한 것은 癩風證이 氣機가 上逆하여 痰涎이 위로 넘쳐 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두 약을 함께 사용하여 痰을 다스리고 氣機를 진정시키고 하강시키기 위해서이다.

鐵鏽湯으로 送服한 것은 相火가 命門에서 발생하여 肝膽에 깃들여 있으므로 相火가 갑자기 동하는 것은 실제로 肝膽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는 肝膽이 木에 해당하고 風에 해당하는 臟이므로 內風의 발동과 煽動은 肝膽으로부터 발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 쇠에 쓴 녹(鐵鏽)은 金의 餘氣이므로 金이 木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론을 취하여 肝膽을 진정시키고 內風을 그치게 한 것이다. 또 철이 전기를 끌어들이는 수 있다는 이치를 취하여 무거운 성질로 相火를 끌어내리게 한 것이다.¹⁶⁾

1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327.

(3) 君火相火의 선후천과 治法을 논함

장석순은 醫學衷中參書錄 第五期 第一卷에서 “論人身君火相火有先后之分”이라는 글을 써서 선천의 君火 상화는 아래에 있으니 丹田의 元陽이 君火가 되고 命門에서 생겨난 火가 相火가 되며 후천의 君火 상화는 위에 있으니 心火가 君火가 되고 膽속에 붙어 있는 火가 相火가 된다고 하였다.

또 胃中の 熱力이 不足해서 음식이 소화 안 될 때는 上焦의 陽을 보해야 하니 苓桂朮甘湯에 乾薑 厚朴을 加하고 腸中の 熱力이 不足해서 설사를 할 때는 下焦의 陽을 보해야 하니 補骨脂, 小茴香을 쓴다고 하였다.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⁷⁾

論人身君火相火有先后天之分

道家는 以丹田之火로 爲君火하고 命門之火로 爲相火하며 醫家는 以心中之火로 爲君火하고 亦以命門之火로 爲相火하니 二說이 各執一是하니 其將何以適從乎아 不知君相二火가 原有先天后天之分이라 所謂先天者는 未生以前也오 所謂后天者는 既生以後也라 因先天以臍呼吸하여 全身之生機가 皆在于下 故로 先天之君相二火는 在下하고 后天은 由肺呼吸하여 全身之功用이 多在于上 故로 后天之君相二火는 在上이라 蓋當未生之前하여 陽施陰受하여 胚胎之結에 先成一點水珠(是以로 天一生水라)하고 繼則其中漸有動氣하니 此乃臍下氣海(後天之氣海는 在膈上하고 先天之氣海는 在臍下라) 而丹田之元陽이 即發生于其中(元陽은 是火니 是以로 地二生火라)이오 迨至元陽充足하면 先由此生督任二脉하니 命門者는 即督脉入脊之門也라 是以로 其中所生之火와 與丹田之元陽이 一氣貫通하여 而爲之輔佐하니 此道家가 以丹田之元陽으로 爲君火하고 以命門所生之火로 爲相火니 論先天也라 至于后天하여 以心火로 爲君火하고 自當以膽中寄生之火로 爲相火라 是以로 『內經』論六氣에 止有少陽相火 而未嘗言命門相火라 少陽이 雖有手足之別이나 而實以足少陽膽經爲主라 膽與心이 雖一在膈上하고 一

1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中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91-192.

在膈下나 而上一系相連하야 其氣化가 即可相助爲 理니 此『內經』以心中之火로 爲君火하고 以膈中寄生之火로 爲相火之理니 論后天也라 夫水火之功用은 最要在熟腐水穀하야 消化飲食이라 方書에 但謂命門之火能化食은 而不知膈下氣海가 居于大小腸環繞之中하야 其熱力이 實與大小腸息息相通 故로 丹田之元陽이 尤能化食이라 然이나 此元陽之火與命門之火所化者는 腸中之食也라 至胃中之食은 則又賴上焦之心火와 中焦之膽火化之라 蓋心爲太陽之火로 如日麗中天하야 照臨下土니 而胃中之水穀이 遂可借其熱力以熟腐이라 至于膈居中焦하야 上則近胃하고 下則近腸이오 其汁甚苦하야 純爲火味니 其氣入胃하야 既能助其宣通下行(胃氣는 以息息下行으로 爲順이니 木能疏土 故로 善宣通之라)하고 其汁入腸하면 更能助其化生精液(則西人所謂乳糜라)이라 是以로 愚治胃中熱力不足하야 其飲食消化不良하고 多生寒痰者는 則用藥에 補助其上焦之陽이라 方用『金匱』苓桂朮甘湯에 加乾姜 厚朴하고 甚者는 加黃芪라 臺灣醫士嚴坤榮代友 函問二十六年寒痰結胸하고 喘嗽甚劇이어늘 爲寄此方治愈하니 曾登杭州『三三醫報』第一期致謝라 蓋桂枝 乾姜并用하면 善補少陰君火하고 而桂枝 黃芪并用하면 又善補少陽相火(即膈中寄生之相火라)也라 其腸中熱力不足하야 傳送失職하야 致生泄瀉者는 則用藥에 補助其下焦之陽이라 方用『金匱』腎氣丸에 加補骨脂 小茴香하니 蓋方中 桂 附之熱力은 原直趨下焦하고 而小茴香은 善溫奇經 脉絡하니 奇經은 原與氣海相繞護也오 補骨脂之熱力은 原能補下焦眞陽하고 而又能輔益骨中之脂하니 俾骨髓 充足하면 督脈強盛하야 命門之火自旺也니라

도가에서는 단전의 화로 均화를 삼고 명문의 화로 上화를 삼았으며 의가에서는 심장속의 화로 均화를 삼고 또한 명문의 화로 上화를 삼았으니 두 가지 설이 각각 옳다고 고집하니 장차 어느 것을 쫓아야 하는가? 이것은 均화상화가 원래 선천과 후천의 구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선천이라는 것은 생겨나기 전이요 후천이라는 것은 이미 생겨난 뒤이다. 선천은 배꼽으로 호흡해서 전신의 생명의 기들이 모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천의 均화상화는 아래에 있고 후천은 폐로 호흡해서 전신의 작용이 주로 위에 있기 때문에 후천의 均화 상화는 위에 있는 것

이다. 대개 생겨나기 전에는 양은 기운을 베풀고 음은 그것을 받아 배태가 생길 때에 먼저 하나의 물방울이 이루어지고(따라서 天一生水이다) 이어서 그 속에서 점차 움직이는 기운이 있으니 이것은 배꼽아래의 기해로(후천의 기해는 횡격막 위에 있고 선천의 기해는 배꼽아래에 있다) 단전의 원양이 그 속에서 발생한 것이요(원양은 화인데 따라서 地二生火이다) 원양이 충족하게 되면 먼저 여기로부터 독맥과 임맥이 생겨나니 명문은 독맥이 척추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따라서 그 속에서 생긴 화와 단전의 원양이 하나의 기운으로 관통되어 보좌를 하니 이것이 도가에서 단전의 원양으로 均화를 삼고 명문에서 생긴 화로 상화를 삼는 것이니 선천을 논한 것이다.

후천에 이르러서는 심화로써 均화를 삼고 담속에서 불어서 생겨난 화로 상화를 삼는다. 그러므로 내경에서 육기를 논 할 때에 단지 소양상화만 있지 명문상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양은 비록 수경과 족경의 구별이 있지만 사실상 족소양 담경으로 주장을 삼는다. 담과 심이 비록 하나는 횡격막 위에 있고 하나는 횡격막 아래에 있지만 위아래가 줄로 연결되어 기화작용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치가 있으니 이것이 내경에서 심장속의 불로 均화를 삼고 담속에 불어 생긴 화로 상화의 이치를 삼는 것이니 후천을 논한 것이다.

대저 수화의 작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곡을 부숙시켜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있다. 의사에서 단지 명문의 화만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배꼽아래의 기해가 대장 소장이 돌아가는 가운데 있어 그 열력이 사실상 대소장과 끊임없이 상통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전의 원양이 더욱 잘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원양의 화와 명문의 화가 소화시키는 것은 대소장속의 음식이다. 위속의 음식은 또 상초의 심화와 중초의 담화의 기운을 얻어서 소화시킨다. 대개 심장은 태양의 화로 태양이 중천에 떠서 아래를 비추는 것과 같으니 위속의 수곡이 드디어 그 열의 힘을 빌려서 수곡을 부숙한다. 담은 중초에 있어 위로는 위에 가깝고 아래로는 장에 가까우며 담즙은 아주 썩서 전적으로 火味가 되니 그 기운이 위에 들어가 선통시키고 하행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고(위기는 항상 하행하는 것을 順으로 삼고 木은 土를 소멸 시키므로 잘 선통시킨다) 담즙이 장으로 들어가면 다시 정액을 화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즉 서양 사람이 말하는 乳糜이다).

따라서 내가 위중의 열의 힘이 부족해서 음식이 소화 안 되고 한담이 많이 생기는 자를 치료한 것은 약을 쓸 때에 상초의 양을 도와주었다. 처방은 금궤의 영계출감탕에 건강 후박을 넣고 심한 자는 황기를 가해 쓴다. 대만의 의사인 엄공영이 편지로 26년 동안 한담으로 고통하고 천식과 기침이 아주 심한 것을 물어왔거늘 이 처방을 붙여 주어서 낫게 하였으니 항주의 『삼삼의보』 제 1기에 감사를 표하는 글이 실려 있다. 대개 계지와 건강을 함께 쓰면 소음군화를 잘 보하고 계지와 황기를 함께 쓰면 또 소양 상화를 잘 보한다(곧 담속에 붙어있는 상화이다).

장 속의 열의 힘이 부족하여 전송작용을 하지 못해 설사가 나는 자는 약을 쓸 때 하초의 양을 보해주어야 한다. 처방은 금궤신기환에 보골지 소회향을 가하니 처방 속의 계지 부자의 열의 힘은 본래 곧장 하초로 달려가고 소회향은 기경의 맥락을 잘 따듯하게 하니 기경은 원래 기해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보골지의 열의 힘은 원래 하초의 진양을 보하고 또 뼈 속의 영양을 보익해주시니 골수가 충족해지면 독맥이 강해져서 명문의 화가 저절로 왕성해진다.

5. 心主神明 에 대한 體用論

(1) 概說

心主神明은 또 心主神, 心臟神이라고도 하는데 心의 중요한 생리기능이다. 神에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는데 광의의 신은 전체적으로 드러난 인체 생명활동의 外在의 表現으로 사람의 形象, 眼神, 面色, 表情, 言語, 應答, 肢體活動, 脈神등을 통해 밖으로 반영된 것이고 협의의 신은 사람의 정신, 의식, 사유 활동을 가리킨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하여 심장이 神明을 주관하는 장기임을 밝혔는데 장석순은 『素問脈要精微論』의 “頭者 精明之府”의 논술과 도가서적 등을 참고하여

腦에는 元神이 있고 心에는 識神이 있어 體와 用이 됨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腦에 元神이 있고 기억작용이 腦에 있다고 주장한 의가는 장석순이 처음은 아니다.

李時珍은 『本草綱目』의 辛夷條에서 “腦爲元神之府”라 하여 뇌와 정신활동이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¹⁸⁾

清代 汪昂의 『本草備要』 중에는 “人之記性皆在腦中(사람의 기억은 모두 腦속에 있다.)¹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今人每記憶往事할새 必閉目上瞪而思索之하니 此即凝神于腦之意也(지금 사람이 지난 일에 대하여 기억할 때 반드시 눈을 감았다가 위를 쳐다보며 생각을 하니 神을 腦에 응집하여 생각해내려 하기 때문이다.)²⁰⁾”라고 하였다. 후에 王清任이 前人들이 認識한 기초 위에 腦의 기능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논술을 하였다. 그의 『醫林改錯』중에 말하기를 “靈機記性在腦者는 因飲食 生氣血하고 長肌肉하며 精汁之清者化而爲髓, 由脊骨上行入腦하니 名曰腦髓라 …… 兩耳痛腦하니 所聽之聲이 歸于腦 鼻通于腦하니 所聞香臭가 歸于腦라 小兒至周歲腦漸生, 舌能言一二字(靈機와 기억이 腦에 있다는 것은 음식에서 化生된 氣血이 肌肉을 긴장하게 하고, 精汁 가운데 맑은 것은 化하여 腦에 가게 되는데, 脊骨을 상행하여 腦에 들어가면 腦髓라 한다. 양쪽 귀는 腦와 통하므로 청취한 소리는 腦에 들어가며 코도 腦와 통해 있으므로 냄새를 맡으면 腦에 들어가게 된다. 어린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腦가 점차 커지게 되고 혀도 발달하여 말도 한두 마디씩 하게 되는 것이다.)²¹⁾”라고 하였다. 王氏는 이미 記憶, 言語, 視覺, 聽覺, 嗅覺 등 感覺機能이 모두 腦에 歸屬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이르러, 한의학의 腦에 대한 인식은 큰 걸음을 하게 되었고 近代 醫學에서의 腦에 대한 인식과도 기본적으로는 일치한다.

1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7. p. 1936.

19) 汪昂. 本草備要. 中國.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36.

20) 汪昂. 本草備要. 中國.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36.

21) 溫長路 等編. 醫林改錯識要.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 44.

장석순은 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이 되며 명나라 때 金正希의 “人見一物하면 留一影於腦中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이 확실히 옳고 우리의 神은 腦와 心의 양쪽에서 모두 작용하고 있음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또 明代의 金正希가 말하기를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보면 반드시 腦 속에 하나의 영상이 남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의 뇌 속은 카메라의 렌즈(攝映鏡子)와 같다는 말로 이 이치를 실험해 볼 수는 없었으나 실제로 확실히 믿을 수 있다. 내가 이 말에서 心과 뇌의 기능이 서로 돕고 있으나 때로는 또 한쪽으로 편중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사람이 지난 일을 기억함에 있어 항상 머리를 들고 상상하는 모양을 짓는데 이는 뇌에 神을 응축시켜 과거에 머물러 있던 영상을 재생(印)시키려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이치를 연구하려 할 때는 항상 머리를 낮추고 묵묵히 생각하는 모양을 짓는데 이것은 心에 神을 응축시키는 것으로 아무런 모방없이 완전한 창조를 도모하려 함이다.

다시 내가 스스로 체험한 것을 설명해 보겠다. 나는 평소 수학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아직 서양 학문을 알지 못했고 배우고자 해도 가르쳐 주는 스승이 없었다. 丁酉年에 드디어 대수와 기하에 관한 책을 구입하여 아침저녁으로 연구하여 점차 통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때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수학을 공부하였는데 心上에 마치 가느다란 거미줄이 덮고 있는 듯 하였고 수학의 이치가 膈膜에 있는 듯 하여 이 때문에 감히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 없었다. 또한 갑자기 심하게 놀라거나 두렵게 되면 怔忡이 생기거나 손으로 만져도 박동하는 것을 느꼈다. 만일 神이 心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다른 곳에서는 박동하지 않는가. 만일 뇌가 손상되면 지각력이 없게 된다고 말하는데 과연 心이 상할 경우에도 다시 지각이 가능하겠는가?²²⁾

2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5.

장석순은 腦에 있는 元神과 心에 있는 識神은 끊임없이 서로 통하여 저절로 맑아져서 길이길이 깨어 있게 된다(湛然長醒)고 하였으며 해부학적으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뇌와 통하고 있는데 이것이 神明이 心과 腦를 왕래하는 길이라고도 하였다.²³⁾

또 資生湯條에서 “或者가 問기를 『內經』에서는 ‘脾主思’라 하였고 서양인들은 사고는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당시는 사고가 心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어찌된 것인가?”

대답하기를 “『內經』에서 ‘脾主思’라 말한 것이 脾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脾는 土에 속하고 土는 안정을 주하므로 사람은 안정된 후에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니 이는 『大學』에서 말하는 안정된 이후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인들이 사고가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內經』에서 이미 그 이치를 밝혀 놓았다.

『脈要精微論』에서 ‘머리는 精明의 府’라고 하였는데 무릇 머리의 중심점에 뇌가 있으니 머리가 精明의 府이므로 뇌가 곧 精明의 府가 된다. 이미 精明이라고 해놓고 어찌 생각할 수 없다는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역시 뇌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古文을 보면 ‘思’자는 ‘慮’이라고 되어 있는데 ‘慮’자는 腦를 가리키고 ‘心’자는 心을 가리킨다. 이를 보면 ‘思’자는 원래 心과 腦가 서로 보완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또한 틀림없이 脾土를 진정시키는 힘을 도울 수 있다.²⁴⁾

또 “醫學宜參看丹經論”에서는 “중의학에서는 사람의 神明이 心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神明이 병이 들면 모두 治心하는데 중점을 둔다. 서양 사람은 사람의 신명이 뇌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명이 병이 들면 모두 治腦하는데 중점을 둔다. 丹經을 보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元神이고 心中에서 發出하는 것은 識神이니 이것이 사실상 중의학과 서의학이 서로 연결되고 통할 수 있는 것이고 『內經, 脈要精微論』의 “頭者精明之府”와 『靈蘭秘典論』의 “心者 君主

2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下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00.

2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3.

之官 神明出焉”의 문장과 서로 부합되는 것이다. 사람의 神明에 본체와 작용이 있으니 神明의 본체는 뇌에 저장되어 있고 神明의 作用은 心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⁵⁾

(2) 人身의 神明을 체계적으로 論함

장석순은 “醫學衷中參西錄 第五期 第一卷에서 人身神明詮을 지어 神明을 체계적으로 論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人身神明詮

自神明在腦之說이 倡于西人으로 近今講科學者鮮不謂其說至精至奧하여 爲開天闢地之名論하고 而吾上古聖神은 猶未嘗見及이라하니 此誠所謂以管窺天이며 以蠡測海者也라 詎知神明在腦之說이 吾中華醫學이 早先西人數千百年而發明之하고 且其所發明者較西人尤爲精奧하여 而於神明之體用에 又能詳細鑒別하여 各得其實際也리오 醫學之書는 以『內經』으로 爲最古하니『素問』脈要精微論에 曰 “頭者精明之府”라하니 夫精明은 即神明也라 頭는 即腦之外廓이오 腦는 即頭之中心點也라 國家之貨財藏於府하니 茲則名之爲府者는 確定其爲神明所藏也라 又『素問』靈蘭秘典에 曰 “心者는 君主之官이니 神明出焉”이라하니 細繹經文컨대 蓋言神明이 雖藏於腦나 而用時에 實發露于心故로 不曰藏而曰出하니 出者는 即由此發露之謂也라 於以知脈要精微論所言者는 神明之體오 靈蘭秘典所言者는 神明之用也라 斯義는 可兼徵之于『丹經』이라 夫『丹經』은 祖述黃帝하니 原與『內經』으로 相表裏하니 歷代著作이 雖不一致나 而莫不以腦中爲元神하고 心中爲識神이라 元神者는 無思無慮하니 自然虛靈也오 識神者는 有思有慮하니 靈而不虛也니 此中妙諦는 慧心人可靜參也라 又可徵之於字體니 夫神明之用은 在思하니 思는 古文作惛하니 昏者는 腦也오 心者는

心也니 蓋言心與腦神明이 貫通而後에 可以成思也라 此與腦爲元神 心爲識神之義로 相符合하니 即與『內經』의 神明이 藏於腦而發於心之義로 相符合也라 且更可徵之於實驗이니 神明은 爲人身純陽之物로 陽者性熱하니 腦藏神明故로 腦不畏寒하고 心爲神明發露之處로 過用其心者는 神明이 常常由心發露 故로 心恒發熱하니 此則人人皆能自覺이로대 爲未經發明하여 是以覺而不察耳라 由此可悟養生之道矣니 凡人之享大年者는 下元이 必常溫暖하고 氣血이 必常充足하며 人之神明이 固可由腦至心하고 更可以誠意導之而行於全身이니 是以로 內煉家有凝神入氣穴之語라 誠以孟子謂志能帥氣는 即神能帥氣니 即神明照臨之處는 即真氣凝聚之處라 神氣充足하여 丹田溫暖하면 壽命之根이 自然壯固니 神明之功用이 何其弘哉리오

신명이 뇌에 있다는 설이 서양 사람에 의해 제창됨으로부터 근래에 과학을 말하는 자들이 그 설이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심오하여 천지가 개벽하는 명론이고 우리 상고시대의 성신들은 오히려 일찍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진실로 이른바 대롱으로 하늘을 보며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것이다. 신명이 뇌에 있다는 설이 우리 중의학이 서양 사람보다 수천백년을 훨씬 앞서서 발명했고 또한 그 발명한 것이 서양 사람보다 훨씬 정밀하고 심오해서 신명의 체와 용을 상세히 감별하여 각각 그 실제적 의의를 얻었음을 그 누가 어찌 알고 있으리오.

의서는 내경이 가장 오래 되었으니 소문 맥요정미론에 “頭者精明之府”라 하였는데 精明이라는 말은 神明이다. 머리는 뇌의 외곽이고 뇌는 머리의 중심이 된다. 국가의 재화는 府에 저장되는데 이것을 府라고 이름 한 것은 신명이 갈무리되어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또 소문 영란비전론에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하였다. 경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이 비록 뇌에 저장되어 있으나 쓸 때에는 心에서 사실상 발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藏이라고 하지 않고 出이라고 했으니 出이라는 것은 이로부터 발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이른다. 여기에서 맥요정미론에서 말한 것은 신명의 본체가 되고 영란비전론에서 말한 것은 신명의 작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뜻은 단경에

2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中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 214.

2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中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p. 181-182.

서 아울러 증명할 수 있다. 대저 단경은 황제를 뿌리로 삼아 기술했으니 원래 내경과 서로 표리가 되니 역대의 저작이 비록 일치하지는 않지만 뇌 속을 원신으로 삼고 심장을 식신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다. 원신은 생각도 없고 염려도 없으니 자연히 비고 신령스럽고 식신은 생각과 염려가 있으니 신령스럽되 비어 있지는 않은 것이니 이 가운데의 오묘한 뜻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히 고요히 참여하여 알 수가 있다. 또 글자의 모습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으니 신명의 작용은 생각에 있으니 생각 思字 는 고문에서慮로 쓰는데 위의 囟는 뇌고 아래의 心은 心이니 心과 腦의 신명이 관통된 이후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시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신명은 사람 몸의 純陽의 물건으로 양의 성질은 뜨거우니 뇌는 신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뇌는 찬 것을 싫어하지 않고 心은 드러나는 곳으로 그 마음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자는 신명이 항상 마음에서 발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항상 열이 나니 이것은 사람마다 모두 자각할 수 있지만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느끼면서도 살피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로 말미암아 양생의 도를 깨달을 수 있으니 모든 오래 사는 사람은 下元이 반드시 항상 따뜻하고 기혈이 반드시 항상 충족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명이 뇌로부터 심장에 이르고 다시 정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인도하여 전신에 보낼 수 있으니 따라서 내단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을 응기시켜 氣穴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있다. 진실로 맹자가 뜻이 능히 기를 거느린다고 말한 것은 바로 신이 기를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이니 신명이 비추고 임하여 있는 곳은 바로 진기가 응취되어 있는 곳이다. 신기가 충족되어 단전이 따뜻해지면 수명의 뿌리가 자연히 건장하고 견고해지니 신명의 조화작용이 어느 것이 이보다 크리오.

6. 結 論

張錫純의 心의 生理에 대한 闡發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血은 心火에서 생겨나 大氣에 의해서 운행된다. 大氣는 元氣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元氣는 命門穴에서 생겨나 水穀之氣의 培養을 받으며 胸中에 머무는데 이 胸中大氣를 宗氣라 부른다.
2. 君火는 心中에서 發한 陽中之火로 脾胃의 음식물을 소화시키며 君火가 下行하면 相火가 旺盛해져서 下元이 溫暖해진다.
3. 相火는 命門穴에서 유래하여 三焦인 油膜(網油)을 따라 心包結에 이어지는데 모두 火에 속하고 오른쪽의 尺部에서 진단한다.
4. 先天의 君火는 丹田의 元陽이고 相火는 命門之火이며 后天의 君火는 心火이고 相火는 역시 命門之火인데 膽中寄生之火이다. 元陽之火와 命門相火는 大小腸의 음식을 소화시키고 上焦의 心火와 中焦의 膽火는 胃속의 음식을 소화시킨다.
5. 張錫純은 서양 사람들이 神明이 腦에 있다는 說과 丹經의 元神說 그리고 頭者精明之府, 心者君主之宮 神明出焉의 說을 綜合하여 腦는 神明之體가 되어 元神이 머물고 있고 心은 神明之用이 되어 識神이 作用한다고 하였다.

參考文獻

1. 劉景超, 李具雙 主編. 許叔微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 溫長路等編. 醫林改錯識要.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3. 汪昂. 本草備要. 中國.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中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下冊.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7.